

 POSRI 보고서

중국 서부지역으로 몰려가는 글로벌 기업들

김창도 수석연구위원, 지역·경제연구센터 (jincd@posri.re.kr)

[목 차]

1. 삼성과 현대자동차, 서부지역에 투자한다
2. 서부 대개발이 제공하는 기회
3. 한국기업의 서부지역 진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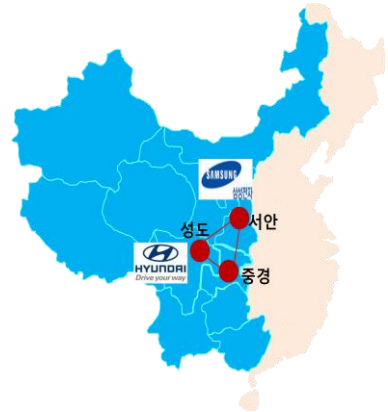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들이 중국 서부지역에 크게 투자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음
 - 9월 12일 삼성전자가 서안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 기공식을 했음. 초기 투자는 23억 달러, 총 투자규모는 70억 달러에 달함
 - 현대자동차도 8월 28일 사천성 자양(資陽)시에서 사천현대 상용차 공장을 착공. 총 36억 위안(6천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 그 동안 한국기업의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연간 1억 달러에도 못 미쳤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임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은 50년짜리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프라 구축 등 투자환경 개선, ▶자원 개발, ▶소비시장 확대, ▶주변지역 수출기지 가능성, ▶우대정책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에 사업 기회를 제공함
 - 서기동수(西氣東輸), 서전동송(西電東送), 남수북조(南水北調), 퇴경환림(退耕還林) 등 주요 프로젝트가 초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2기 목표를 추진. GDP, 고정자산투자, 대외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도 크게 개선됨
 - 천연가스 매장량은 총 3조3796억 m^3 (중국 전체의 84.1%), 석탄 887억 톤(41.1%), 석유 11억7565만 톤(36.3%), 철광석 60억7천만 톤(31.5%)임
 - 2011년 서부의 최종 소비지출은 4조9219억 위안. 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중국 전체(12.7%)를 상회함
 - 2000년에 비해 2011년 서부지역 변경무역은 14배 증가했으며, 특히 주변국에 대한 수출은 20배나 늘어났음
 - 서부지역에서는 기업소득세율 감면, 토지심사 간소화, 보상비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한국기업은 서부지역 진출시 ①전략거점의 다변화와 세분화, ②현지업체와의 합작, ③현지 완결형 사업체제 구축, ④리스크 변동성에 대비한 Contingency Plan 마련 등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생산과 수요를 연결하고 시장을 차별화 하려는 노력이 중요함. 특히 지역 특성에 맞게 전략거점을 구축해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서부지역의 개방도가 낮은 만큼 현지 유통, 정부관계 등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이 성패를 가를 수 있음
 - 서부에서 연구, 조달, 생산하고 서부내륙에 판매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함
 - 투자환경 변동성에 대비해 진출 초기부터 단계별·순차적 철수 전략도 필요

1. 삼성과 현대자동차, 중국 서부지역에 투자한다

□ 수요업체 요구 수용, 거대 내수시장 선점, 정부정책 활용 목적

- 삼성전자가 9월 12일 중국 서부지역에 위치한 서안에서 반도체 생산 공장 기공식을 했음. 총면적 140만㎡, 초기 투자액 23억 달러, 총 투자 규모는 70억 달러임
 - 2014년부터 차세대 10나노급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월 10만장 생산할 예정으로 이 지역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부에서는 확보한 부지를 놓고 총 투자규모가 300억 달러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삼성전자 측은 초기 투자 후 시장여건에 따라 추가 투자를 검토한다고 밝혔음
- 현대자동차도 8월 28일 사천성 자양(資陽)시에서 사천현대 상용차 공장을 착공. 총 36억 위안(6천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려졌다
 - 2014년 상반기 완공 예정. 현재 연산 15만대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장 설계로 볼 때 향후 30만대까지 확대 가능함
- 삼성생명, 한화 차이나 등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폭스바겐, ABB 등) 및 화웨이, 중싱 등 중국 업체들도 서부지역 진출을 가속화 하고 있음
 - 서안, 성도, 중경 등 3대 성장축을 중심으로 생산기지 및 지역거점을 구축하고 있음
 - 삼성생명은 7월 23일 사천에 중국 합작법인 네 번째 분공사를 설립했으며, 우리은행도 1월 16일 성도지점을 개설. 한화차이나는 지난해 10월 사천성과 서부 대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 MOU를 맺었음



※ 그 동안 서부지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연간 1억 달러에도 못 미쳤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임

[글로벌 기업들의 서부지역 진출 현황]

산업	업체 및 투자 내용	연도
자동차	폭스바겐, 제 3공장 준공(성도)	2009
	현대차, 남준(南駿)자동차와 상용차 법인 설립(성도)	2010
전력 장비	ABB, 대용량 사이러스터 제조기지 설립(서안)	2009
반도체	Infineon, 집적회로 제조기지 설립(서안)	2009
	Micron Technology, 반도체 공장 설립	
	Simmtech, 반도체 부품 공장 설립	
가전	도시바, 냉장고 합자회사 설립(서안)	2009
	Acer, Quanta, Foxconn, 내륙 이전(중경)	2010
소프트웨어	IBM, 2,000만 달러 투자 (서안)	2009

2. 중국 서부 대개발이 제공하는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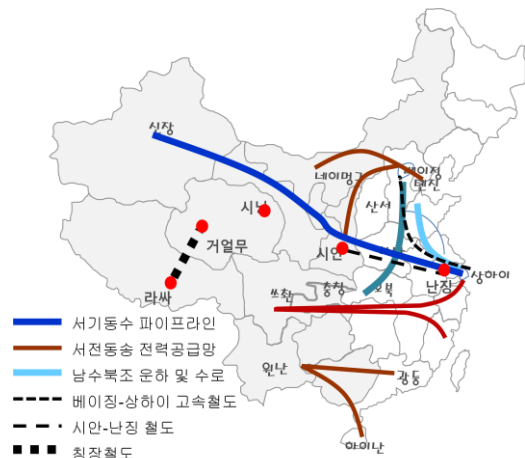
서부 대개발은 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50년짜리 대규모 프로젝트임. 개발 총면적은 685만km²에 달해 중국 국토 면적의 71%를 차지함. 인구는 3억 6222만 명(2011년). 섬서, 사천, 중경, 운남, 귀주 청해, 감숙, 내몽고, Ningha, 신강, 저장, 광서 등 12개 성급지역 포함

세 단계로 구분됨. ①2000~2005년 개발 초기(개발계획과 정책 등 수립,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리기구 설립, SOC분야 건설 가속화), ②2006~2015년 대규모 개발기간(자체 개발능력 제고, 비SOC분야 투자 확대), ③2016~2050년 전반적 발전단계(도시화, 구매력 제고 등 시장화 추진,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화 수준 향상)

□ 대규모 정부투자로 인프라 구축 및 경제성장 등 투자환경 개선

○ 2001~2011년간 총 3조 위안 이상 투자, 초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 천연가스를 동부에 수송)',
- '서전동송(西電東送, 서부 전력을 동부에 전송)',
- '남수북조(南水北調, 남쪽의 수자원을 북부지역에 끌어들이)',
- '퇴경환림(退耕還林, 개발 경작지를 산림으로 되돌림)' 등 프로젝트가 초기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2기 목표를 추진



○ GDP 고성장, 고정자산 투자 및 대외수출 증가 등 경제지표 크게 개선

구분	서부지역 11년간 주요 경제지표 변화
GDP 및 비중	- 연평균 증가율 17.7%(명목, 중국전체 증가율 15.3%) 2000년 1조6655억 위안→2011년 10조235억 위안 GDP 비중 2000년 16.8%→2011년 19.2%, 2.4%p 증가
1인당 GDP	- 연평균 증가율 17.5%(중국 전체 증가율 14.6%) 2000년 4687위안→2011년 2만7672위안
고정자산 투자	- 연평균 증가율 25.2%(명목, 중국 전체 증가율 22.7%) 2000년 6110억 위안→2011년 7조8586억 위안
대외 수출	- 연평균 증가율 24.2%(중국 전체 증가율 20.3%) 2000년 99억 달러→2011년 1080억 달러

* 자료: 중국통계연감 2012, 각 지방정부 발표자료 종합

□ 중국 에너지 자원(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의 보고

- 천연가스(중국 전체의 84.1% 차지), 석탄(41.1%)은 주로 서부지역의 북부에 편중되어 있음. 신장, 내몽고, 섬서, 사천 지역 자원 매장량이 풍부함
 - 천연가스 매장량은 총 3조3796억 m^3 , 석탄 887억 톤, 석유 11억7565만 톤(중국전체의 36.3%), 철광석 60억7천만 톤(31.5%)임
 - 신장과 섬서에는 석유·천연가스·석탄 등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며, 내몽고와 사천에는 천연가스·철광석이 풍부함

[서부지역 부존자원 현황,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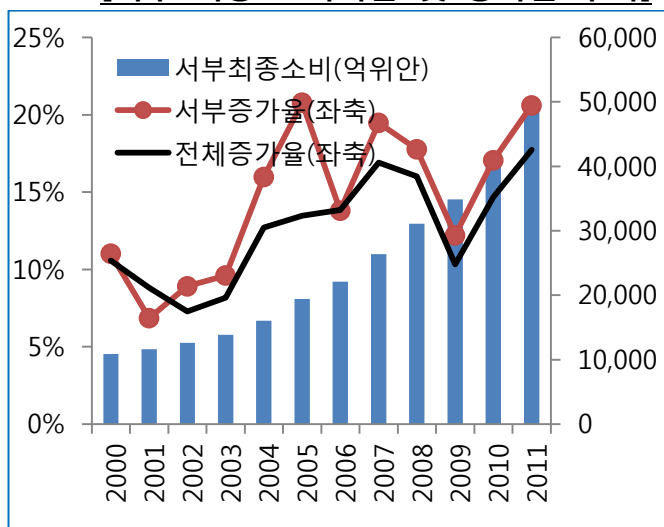
	석유 (만톤)	천연가스(억 m^3)	석탄(억톤)	철광석(억톤)
중국전체	323,967.9	40,206.4	2,157.9	192.8
서부	매장량 비중			
	117,565.3	33,796.3	886.7	60.7
	36.3%	84.1%	41.1%	31.5%
내몽고	8,520.4	8,040.5(24)	368.9(42)	13.6(22)
광서	142.9	3.4	2.0	0.3
중경	159.1	1,955.3	18.6	0.2
사천	818.7	7,973.1(24)	51.8	29.2(48)
귀주	0.0	10.5	58.7	0.1
운남	12.2	2.3	59.7	3.8
서장	0.0	0.0	0.1	0.2
섬서	29,844.3(25)	5,478.0(16)	107.6(12)	3.9
감숙	15,529.2(13)	191.6	23.5	5.5
청해	5,529.4	1,329.1	16.1	0.1
녕하	710.0	2.5	31.3	0.0
신장	56,299.1(48)	8,809.9(26)	148.4(17)	4.0

주) ()는 서부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 2012 중국통계연감

□ 개발 가속, 내수위주 성장방식 전환 등으로 중산 소비계층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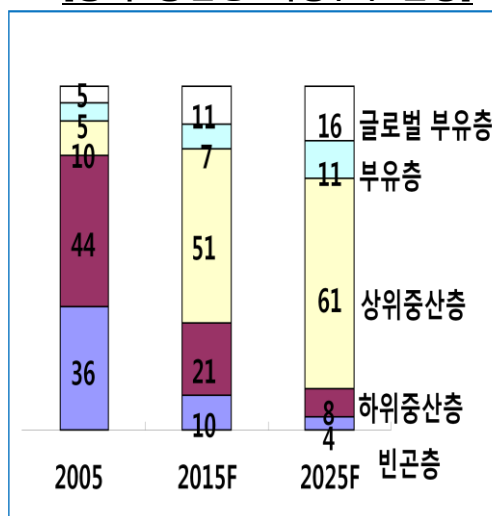
- 2011년 서부의 최종 소비지출은 4조9219억 위안. 11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중국 전체(12.7%)를 상회함

[서부 최종 소비지출 및 증가율 추이]



자료 : 중국통계연감

[중국 중산층 비중(%) 전망]



자료 : MGI China Demand Model V2.0

□ CIS 국가와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 주변국 대상 수출기지 가능성

○ 도로·철도 등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면서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주변국과의 경제교류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2000년에 비해 2011년 서부지역 변경무역은 14배 증가했으며, 특히 주변국에 대한 수출은 20배나 늘어났음
- 위안화 결제 가능 지역의 확산 등으로 인접국과의 교역은 강화될 전망이다. 인건비가 동부 연해에 비해 저렴한 것도 장점(2011년 상해 노동자 평균 연봉 7만5482위안, 사천성은 3만7330위안에 불과)

[2011년과 2000년 서부 변경무역 비교]

	2011 교역규모		2000년 기대비	
		수출	(배)	수출
러시아	77,929	38,886	10	17
몽골	6,399	2,733	20	25
카자흐	24,890	9,561	16	16
키르기스	4,976	4,879	28	44
타지크	2,069	1,997	120	294
아프간	234	230	9	12
파키스탄	10,561	8,438	9	13
인도	73,901	50,489	25	32
네팔	1,195	1,181	6	6
부탄	17	17	9	9
미얀마	6,502	4,825	10	10
라오스	1,274	472	31	14
베트남	40,196	29,088	16	19
합계	250,144	152,796	14	20

자료 : 무역협회



□ 동부 연해에서 소멸된 다양한 우대정책도 서부지역에서는 유지

○ 중국정부는 2000년 중반부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나, 서부지역에서는 기업소득세율 감면(15%), 토지심사 간소화, 보상비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2000년대 후반부터 외자기업 환영 일변도에서 선별유치로 전환하고 있음. 정책 방향은 ① 산업구조 고도화 및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적·선별적 투자 유치, ②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M&A 투자 제한 및 기술 이전 요구 증대, ③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 및 법규 준수 강조, ④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요구 증가 등임
- 광서북부만 경제구(2008.1), 관천경제구(2009.6), 성유경제구(2009.7) 개발에 이어 지난 8월 란주신구 국가급 개발구 지정 등으로 보면 서부에서의 우대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보통 경제구 및 개발구 등 특구에서는 외자기업에 정책혜택을 제공함)

3. 한국기업의 중국 서부지역 진출 전략

□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전략거점의 다변화와 세분화

- 생산과 수요를 연결하고 시장 차별화 노력이 중요. 지역특성에 맞게 전략거점을 구축하고 집중할 필요
 - 서부 12개 성급 지역별로 시장 및 소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안, 성도, 중경 등 핵심 3개 도시를 중심으로 거점을 구축한 후 주변으로 뻗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함
 - 스타벅스 사례: 중국 진출 당시 3개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각각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음. 북경·천진 등 화북지역은 중국 Local 기업과, 상해·항주 등 화동지역은 대만기업과, 광둥·홍콩·마카오 등 화남 지역에서는 홍콩기업과 협력해 단기간에 중국 전역을 장악했음

□ 서부 현지 사정에 밝은 로컬 업체와의 협력이 중요

- 서부지역의 개방도가 낮은 만큼 현지 유통, 정부관계 등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성패를 가를 수 있음
- 합작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50% 이상의 명목지분 고수보다는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가 더욱 중요함
 - 중국은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에서 중요 의사결정과 일상 의사결정과 관련해 만장일치, 3분의 2이상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통과 등 공동경영 원칙을 법으로 규정함
 - 현대자동차 사례: 북경기차와 50:50 지분으로 북경현대기차를 설립하면서(2002.10), 총경리 임명권 갖고(중국측은 이사장 임명권 획득) 실질적으로 경영을 주도해 성공했음

[중국의 외국인투자 경영권 의미]

중요 의사결정	일상 의사결정
-기업의 정관개정, M&A, 해산, 증·감자 등 포함	-총경리 임명, 경영방침, 투자계획, 연도 예산수립 등 포함
-중외합작기업(CJV)과 중외합자기업(EJV): 이사회 만장일치 요구	-CJV, EJV: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해야 일상적 의사결정 논의 가능
-외상(外商)투자주식공사: 주주총회의 3분의 2이상 통과 요구	※ 총경리가 일상 의사결정권 집행
	-외상투자주식공사: 이사회의 반 이상이 참석해야 일상적 의사결정 논의 가능

* 자료: <중외합작기업법 및 실시세칙>, <중외합자기업법 및 실시세칙>, 외상투자주식공사 관련 법규, <공사법> 등 종합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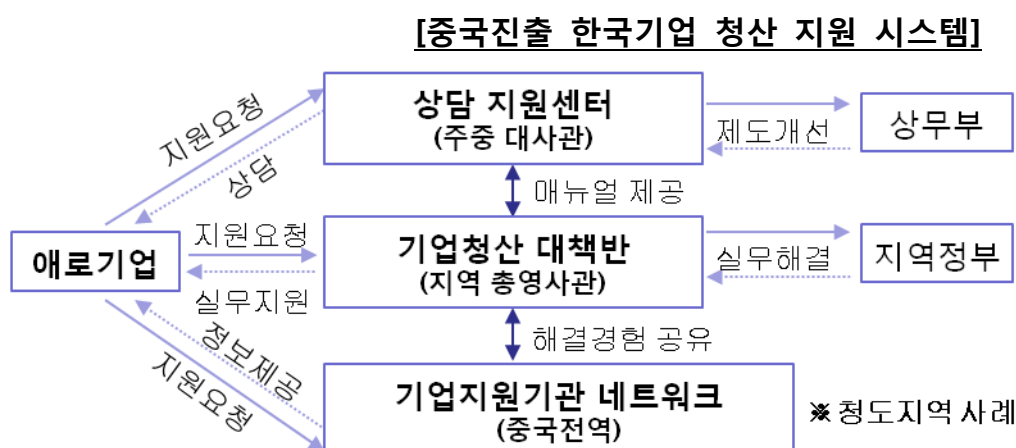
□ 시장, 기능, 인력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 현지완결형 체제 구축

○ 서부에서 연구, 조달, 생산하고 서부내륙에 판매하는 전략 추진

- **KFC 사례:** 중국진출 초기 중국계 왕다둥을 아시아 부분부장으로 기용해 성공했음. 왕다둥은 현지 조달망을 개척하고 對정부 소통 등을 수행하며 KFC의 성장을 견인함
- **MS 사례:** 중국 센터를 확대해 미국에 이은 글로벌 R&D 거점으로 육성하여 현지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변형해 단기간에 중국시장을 석권했음
- **존슨 & 존슨 사례:** 중국 내에서 강력한 지명도를 지닌 베이징다이오 화장품을 인수해 단기간에 내륙과 농촌까지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했음

□ 리스크 변동성에 대비한 Contingency Plan을 마련해야 함

- 수출둔화 가속, 부동산 침체 장기화, 공급과잉 확대, 계층간 갈등 심화, 지도부 교체기의 정치리더십 약화 등 차이나 리스크는 서부대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함
- 동부지역 투자경험으로 볼 때, 투자 유치 시에는 현지정부가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공하다가도 현지법인이 가동되면 관심이 크게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 변동성이 점점 커짐
 - 경영악화 예상 시 ① 지분매각→운영중단→자산매각→청산 등 단계별/순차적으로 철수하는 전략, ② 노무, 회계, 세금 문제의 투명한 관리(토지사용권 합법 취득), 이해관계가 복잡한 채권의 우선적·선별적 관리, 점진적인 인력 감축계획 수립 등 기업 양도 및 청산에 대비한 사전 준비, ③ 한국정부의 청산지원 시스템 활용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함



[별첨] 한국과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관계

- 서부지역이 거대하고 또 12개나 되는 성급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교류는 전반적으로 부진함. 2011년 한국과 서부지역의 교역액은 57.1억 달러로 한중 교역의 2.3%에 불과함
 - 이 중 서부지역에 대한 수출은 29억6천만 달러로 대중국 수출 전체의 1.8%에 불과하며, 수입은 27억5천만 달러로 전체의 3.3% 수준
-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금년 6월까지 누적기준으로 5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대중국 투자 총액 382억7천만 달러의 1.4%임

[한국과 서부내륙 경제관계 현황]

구분		對중국	對서부내륙
'11년 교역 (억달러)		2,206.2(20.4%)	57.1[2.3%]
	수출	1,341.9(24.2%)	29.6[1.8%]
	수입	864.3(16.5%)	27.5[3.3%]
투자 (억달러)	전체(~'12.6)	382.7(19.0%)	5.3[1.4%]
	'11년	35.8(14.0%)	0.6[1.6%]

주 ()은 한국의 대외무역 전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은 한중 경제교류에서 서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 한국과 중국 서부지역의 경제교류가 부진한 원인은 지리적 거리, 열악한 투자환경, 시장 인식 차이 등임. 서부로 가려면 동북, 중부, 동부연해 지역을 거치거나, 서부와 인접한 CIS 국가, 중앙아시아,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을 경유해야 함
- 서부지역은 동부연해에 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며, 법제도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있음. 또 정부 공무원이나 지역사회의 시장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경직된 관료사상과 폐쇄적인 측면이 많이 남아있음

